



즉시 배포용: 5/5/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JETBLUE, Cuba Travel Services는 NEW YORK에서 HAVANA까지 전세기 직항을 발표**

*뉴욕 주 무역 사절단의 임무는 JetBlue를 Cuba 취항 선두 항공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JetBlue Airways, New York's Hometown Airline™와 함께 하며, 이들의 운항 파트너 Cuba Travel Services는 오늘 New York에서 Cuba의 Havana로 가는 새로운 운항 노선을 발표 했습니다. 이러한 초석은 여행 제한이 최근 완화 된 이후 JetBlue가 뉴욕에서 쿠바로의 새로운 노선을 발표하는 주요 항공사 중 첫 번째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확장되는 운항 서비스는 JetBlue의 CEO Robin Hayes와 다른 뉴욕의 비즈니스 리더에 의해 결합되며 주지사와 함께 새로운 기회에 뉴욕 기업을 연결하는 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쿠바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무역 미션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Global NY initiative와 쿠바에 대한 우리의 무역 미션은 모든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문을 열게 되며, 그리고 오늘 JetBlue의 흥미로운 발표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뉴욕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외교 관계를 재설함으로써 쿠바에 대한 주정부의 무역 미션 중 하나를 선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쿠바의 새로운 잠재 고객을 위한 새로운 전망에 뉴욕 주

기업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국가 간의 새로운 시대에 쿠바에서 뉴욕까지 직항을 발표하는 최초의 주요 항공사를 만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해 **JetBlue**의 CEO Robin Hayes 를 칭찬합니다. “

**Cuba Travel Services**는 **JetBlue**가 운항하는 노선을 제공하며, 금요일마다 뉴욕의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JFK)에서 하바나의 José Martí International Airport (HAV) 간의 노선을 2015년 7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여행자는 **Cuba Travel Services** ([www.cubatravelservices.com](http://www.cubatravelservices.com))에서 예약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Cuba Travel Services**, 최고의 공인 항공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자사의 비행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은 허가받은 여행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여행 옵션을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서비스로 뉴욕에서 쿠바로 여행할 경우 어떠한 연결 지연이나 별도의 경비없이 플로리다를 경유 할 수 있는 옵션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우리는 쿠바에서 뉴욕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 대한 토론을 선도하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대해 감사합니다” Robin Hayes, **JetBlue** 사장 겸 최고 경영자 (CEO)는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무역 미션은 **JetBlue** 가 쿠바의 주요 항공사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Cuba Travel Services**와 같은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 JFK 공항에서 쿠바로의 우리의 첫 비행은 쿠바에 가는 고객에게 **JetBlue**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많은 쿠바인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새로운 직항 여행 옵션을 제공합니다.”

뉴욕 대도시 지역은 플로리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쿠바 계 미국인 인구가 있습니다.

**JetBlue**는 에어 버스 150 석의 A320 쿠바에 대한 모든 전세 항공편을 제공하며, 편안한 좌석을 갖춘 항공사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무료 Fly-Fi 인터넷, 하늘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무료 및 무제한의 유명 스낵과 무 알코올 / 청량 음료; 무료 라이브 **DIRECTV®** 프로그래밍 및 모든 등받이에 **SiriusXM®** 라디오의 100 개 이상의 채널; 가장 큰 발쪽 좌석(미국 항공사의 평균 전체 좌석 피치 기준).

“우리는 JetBlue로 또 다른 권위 있는 항공사 파트너를 만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Michael Zuccato, at Cuba Travel Services의 general manager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JFK 공항의 로테이션은 3개 주 지역에서 여행객뿐만 아니라 쿠바에 갈 때 New York gateway를 선호하는 경유 승객을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에 Cuba Travel Services에 익숙한 서비스의 높은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 할 것입니다.”

뉴욕-하바나 비행에 추가로, JetBlue는 다양한 항공사 파트너와 Tampa (TPA) 와 Fort Lauderdale (FLL) 행 항공편을 포함하여 쿠바에 다섯 주간 왕복 노선을 운영합니다. 쿠바는 JetBlue가 가장 큰 항공사인 전반적인 카리브해 네트워크에서 JetBlue에 중요한 역할을 1일간 담당할 것입니다. 항공사는 2011년에 항공 회사를 위해 쿠바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하바나 사이의  
2015년 7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일정:**

JFK – HAV	HAV – JFK
12:00 p.m. – 3:30 p.m.	4:30 p.m. – 8:00 p.m.

**Cuba Travel Services에 대해**

Cuba Travel Services Inc. 는 미국과 쿠바 사이의 공공 전세 항공편을 논스톱으로 매일 배치하며 쿠바 여행 전문 공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미국 재무부의 Foreign Assets Control (OFAC)에 의해 사용이 허가됩니다. 그들은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가 발행 한 특정 또는 일반 라이선스로 개인, 그룹, 가족, 교사, 학생, 전문가 및 조직, 전체 서비스 여행 일정을 제공합니다.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www.CubaTravelServices.com](http://www.CubaTravelServices.com) 방문하시거나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1-800-963-CUBA (2822).

**JetBlue Airways 에 대해**

JetBlue는 New York's Hometown Airline™ 로, Boston, Fort Lauderdale-Hollywood, Los Angeles (Long Beach), Orlando, 그리고 San Juan.에서 선두적인 항공사입니다. JetBlue은 미국, 카리브해연안, 라틴아메리카의 88개

도시로 연간 3,200만 명의 여객을 실어나르고 있으며, 하루 평균 825대의 비행기를 띄웁니다. 다음 취항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28일 Reno-Tahoe, Nev ; 2015년 6월 11일 Grenada, 2015년 12월 10일에 Albany, N.Y.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JetBlue.com](http://JetBlue.com)를 방문하십시오.

\*JetBlue는 미국 항공사의 평균 함대 전체 좌석 피치를 기반으로, 코치에서 가장 큰 발쪽 좌석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연락처

**JetBlue Corporate Communications**

Tel: +1 718 709 3089

[corpcomm@jetblue.com](mailto:corpcomm@jetblue.com)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